

# 적응프로그램 제언을 위한 대학신입생 학교적응 관련 문헌분석 A Review Study on Adjustment of College Freshmen for Suggesting Adaptation Program

유경희\*, 김종경\*\*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Kyung Hee Yoo(kyunghee@sch.ac.kr)\*, Jong Kyung Kim(jongkimk@dankook.ac.kr)\*\*

## 요약

본 문헌분석 연구는 국내에서 최근 11년간 발표된 대학신입생의 학교적응 관련 문헌을 분석한 연구로, 대학신입생의 학교적응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학교적응 방안과 대학 교육 프로그램 개선의 방향을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문헌분석은 3개의 데이터베이스 국회도서관 자료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를 통하여 문헌 탐색기준에 의해 선택하였으며, 최종 24개의 연구가 선택되었다. 이 중 20편은 상관관계연구, 4편은 실험연구이었다. 대학신입생 학교적응 연구는 2009년부터 매년 1편씩 연구되다가 2012년부터 매년 5-6편으로 증가되어 대학 신입생의 적응에 대해 관심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 24개 문헌들에서 이용한 학교적응 조사도구는 Baker와 Siryk(1984)가 만든 도구를 23편에서 이용되었다. 분석된 상관관계 연구에서의 대학신입생 학교적응 평균은 3.25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신입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수는 20개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신입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 중 외향적 성격, 가족과 사는 경우, 나이가 많은 경우, 학과에 만족한 경우, 학교생활에 만족한 경우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학에서는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자기효능감 증진방안, 스트레스 관리, 대학신입생을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등을 학교와 학과에 맞게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 중심어 : | 학생 | 대학 | 사회적 적응 | 정서적 적응 | 문헌분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articles and theses on adjustment of college freshmen from domestic researches conducted during the past 11 years, to identify overall research trends, and to suggest direction and strategies for college freshman's adjustment. The final 24 articles were selected from three databases, RISS, KISS, and NAL (National assembly library) using specific inclusion criteria. Twenty were correlation studies and four were experimental studies. In 2009, the first study on adjustment of college freshmen was published. Since then several mor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date. This means that people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adjustment of college freshmen. Twenty three studies that are reviewed used Baker and Siryk's college adjustment tool. From reviewed correlation studies, mean score of college students' adjustment was 3.25. The related variables with adjustment of college freshmen revealed 20 items, especially self-esteem, self-efficacy, and stress showed important related concept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adjustment of freshmen were outgoing character, living with family, aged students, satisfied with the area of study, and satisfied with school life.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colleges when planning for the freshmen orientation program should focus on improving self-efficacy of students, stress management, mentor program, and freshmen adjustment program for each department of the school and college.

■ keyword : | Student | Universities | Social Adjustment | Emotional Adjustment | Review Literature as Topic |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6년 07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8월 16일

수정일자 : 2016년 08월 04일

교신저자 : 김종경, e-mail : jongkimk@dankook.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에 해당되며,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어가는 시점으로 자신의 정체감, 인생관, 가치관을 확립해나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에 적합한 성인으로 발달해 나가는 과목이기도 하다[1]. 대학생은 대학이라는 환경속에서 학습능력과 대인관계를 함양해가며 자신이 처한 환경과 적응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보다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감정, 가치관등을 길러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생은 전문성과 사회성을 개발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삶의 방향을 설정해나가는 시점으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은 주요한 발달과제이다[2-4]. 대학에서의 적응은 대학생들의 생활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개인이 대학이라는 환경속에서 생활하며 부딪히는 변화의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결정하여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5]. 대학생은 대학생활을 통해 새로운 생활양식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이 당면한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개인적인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6][7].

적응이란 개인이 사회적 또는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하여 환경으로부터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8]. 사회 적응은 개인이 갖는 여러 가지 욕구를 사회가 받아들이는 동시에 사회로부터의 요청을 개인이 받아들여 개인과 사회 사이에 불균형과 불안 등의 긴장을 없게 하여 조화가 잘 되고 균형이 잘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9].

그러나 대학생은 대학 입학 후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노출되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대학생활 경험하면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10-12]. 대학 신입생들은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고등학교까지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접하게 됨에 따라 심리적 혹은 사회적 적응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대학생이 되어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주어진 과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혼란이 가중되어 휴학과 자퇴를 결심하는

경우도 있다[13]. 홍계옥과 강혜원[9]은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학업 적응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응, 정서적 대응, 대학에의 만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김진희와 도재우[14]는 대학은 대학신입생의 자아가 잘 형성되고 발달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경아 등[15]은 대학생활 적응 척도를 분석한 결과, 1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적응수준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권해수[16]는 신입생들의 대학적응을 돕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대학에서의 정책적 차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대학신입생의 학교적응 연구를 보면 조사연구로는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 감정, 스트레스, 부모와의 애착등과의 관련성 연구, 그리고 실험연구로는 멘토링 프로그램, 학교적응 프로그램, 집단 프로그램 등 몇 개가 이루어져왔다[17-24].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학 신입생의 학교 적응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여, 현 대학 신입생 적응 관련 연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대학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개선방향 및 구체적인 적응방안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국내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 관련 연구들을 조사하여, 저자, 연도, 출처, 대상자 지역과 대상자 수, 조사대상 학교종류와 수, 조사도구의 출처, 문항, 척도 및 신뢰도를 파악한다.
- 2)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 관련 연구들의 학교적응 평균점수와 효과크기를 파악한다.
- 3)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 관련 연구들의 관련 변수와 상관계수를 파악한다.
- 4)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 관련 연구들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간 국내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육적응 관련 연구들을 정리한 문헌분석 연구이다. 본 문헌분석 과정은 Cochran[25]의 문헌분석 과정을 근거로 하였다. 1) 검토 질문을 정의하고 포함시킬 연구를 위한 기준을 개발한다. 2) 관련 연구들을 찾는다. 3) 관련 연구들을 선택하고 자료를 모은다. 4) 연구에 포함시킬 편견의 위험을 사정한다. 5) 자료를 분석한다. 6) 보고 된 편견(bias)을 찾아낸다. 7) 연구결과표를 제시한다. 8)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결론을 이끌어낸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적응 관련 내용을 다룬 논문 중 2005년부터 2015년 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검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본 문헌분석 연구를 위하여 조사한 데이터베이스는 국회도서관 자료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를 이용하였다. 주요어는 ‘대학생’, ‘대학신입생’, ‘적응’, ‘대학 적응’으로 검색하였다. 국회도서관에서는 학위논문 41편과 국내학술지 72편, RISS에서는 학위논문 39편과 국내학술지 113편, KISS에서는 24편의 학술지 총 289편의 논문이 추출되었다. 이들 논문 중 선정기준은 1) 조사대상자가 대학 1학년 학생이고, 2) 적응도구의 출처가 서술되어 있고, 3) 적응 도구의 문항수와 신뢰도가 나와 있고, 4) 적응 평균점수가 나와 있고, 5) 양적연구와 실험연구를 포함하고, 상관계수나 t값이 나와 있으며, 도구개발 연구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하였다.

먼저 3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289편이 도출되었으며 이중 관련이 없는 논문 191개와 중복으로 추출이 된 47편을 제외하였다. 남은 56편을 2명의 연구자가 다시 읽으면서 검토한 결과 상관관계 연구가 아닌 25편을 제외시켰다. 다시 남은 31편을 2명의 연구자가 다시 읽으면서 검토한 결과 연구도구의 신뢰도, 평균값, 상관계수 등이 미비한 7편을 제외시켰다. 최종 24편을 본 문헌분석 연구에 포함하였다[그림 1][표 1].

### 3. 자료분석방법

본 문헌분석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총 24편의 대

학신입생의 학교적응 관련 연구들의 분석내용 즉 년도, 연구 수행 지역, 조사도구의 척도, 신뢰도, 도구문항 수, 적응점수의 평균, 적응 관련 개인특성, 적응 관련 변수들을 정리하고,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효과크기(effect size)를 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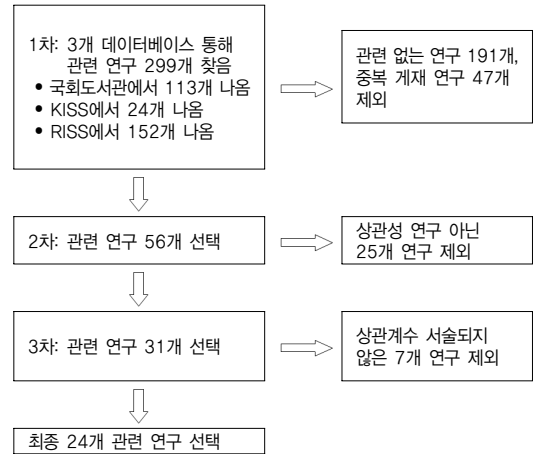


그림 1. 대학신입생 학교적응 문헌 탐색 과정과 결과

표 1. 대학 신입생 학교적응 관련 분석된 문헌

연구자/ 년도	논문 제목	출처
박복남등 /2009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34(2), 153-164.
조화진등 /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 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22(2), 385-411.
배선임/2 011	교류분석이론에 따른 자아상태 및 인생태도가 대학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김경옥등 /2011	대학신입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4), 197-218.
양경희등 /2012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1), 5-13.
박미정등 /2012	전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만족도 정도 및 상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4), 327-337.
강현임등 /2012	일 간호대학 신입생의 MBTI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극복력, 학교적응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3(3), 1-12.

최효진등 /2012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기본간호학회지) 9(2), 261-268.
정효주등 /2012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1(3), 188-196.
한수정/ 2013	문화예술 기숙프로그램의 교수행동이 대학 신입생의 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차선정/ 2013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양식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청주대학교 보건의료과학연구, 2(1), 60-68.
김근면등 /2013	간호대학 신입생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1), 322-332.
김진영/ 2013	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십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연구	직업교육연구, 32(6), 43-56.
최혜정등 /2013	일부 치위생과 신입생의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연관성	대한보건연구, 39(2), 129-138.
정영숙등 /2014	대학신입생의 자기존중감, 자기자비와 대처전략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7(4), 117-138.
김은아등 /2014	간호대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2), 234-243.
심태은등 /2014	부모애착 및 스마트폰 사용이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9(3), 471-487.
박현태/ 2014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3), 1576-1583.
조인영/ 2014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상관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5), 2937-2945.
강희영등 /2015	간호대학 신입생의 행동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1(3), 289-297.
서혜정등 /2012	유아교육과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이 학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1(1), 177-205.
김수미등 /2013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1(4), 201-210.
이경현/ 2014	인지정서행동치료(REBT)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 2015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간호전문직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2), 8948-8956.

### III. 연구 결과

#### 1. 대학신입생 학교적응 관련 문헌들의 일반적 특성

본 문헌분석에서 수집된 총 24편의 연구대상 논문 중 20편(83.33%)은 조사연구이였으며, 4편(16.66%)은 실험연구이였다. 이 중 학위논문은 3편(12.5%) 이였으며, 21편(87.5%)은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들이였다. 학위논문 중 2편은 교육학 전공, 1편은 간호학 전공으로 나타났다으며 2편은 석사학위, 1편은 박사학위 논문이였다.

이 문헌들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보면, 2009, 2010년에 각 1편(4.16%), 2011에 2편(8.33%), 2012, 2013, 2014년에 각 6편(25.00%), 2015년에 2편(8.33%)이였다. 본 문헌분석에서 대학신입생의 학교적응연구가 수행된 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충청, 강원, 경상, 광주 외에 여러 도시에서 연구가 수행되였다.

표 2. 분석된 문헌의 조사대상 학교 수와 대상자 수

연구자/년도	조사대상 학교 수				대상자 수
	3년제	4년제	3년제 혹은 4년제	표시 안 됨	
박복남등/2009	1	-	-	-	282
조화진등/2010	-	3	-	-	347
배선임/2011	-	-	1	-	250
김경옥등/2011	-	-	-	o	1927
양경희등/2012	-	-	-	o	312
박미정등/2012	1	-	-	-	325
강현임등/2012	1	-	-	-	179
최효진등/2012	3	-	-	-	520
정효주등/2012	2	-	-	-	300
한수정/ 2013	-	-	1	-	537
차선정/ 2013	-	3	-	-	138
김근면등/2013	-	2	-	-	159
김진영/ 2013	-	-	-	o	1634
최혜정등/2013	-	-	3	-	229
정영숙등/2014	-	-	1	-	264
김은아등/2014	3	3	-	-	160
심태은등/2014	-	-	1	-	426
박현태/ 2014	-	-	1	-	104
조인영/ 2014	-	1	-	-	202
강희영등/2015	-	-	1	-	203
서혜정등/2012	-	-	1	-	실험군 34 대조군 36
김수미등/2013	-	-	-	o	실험군 39 대조군 39
이경현/ 2014	-	-	1	-	실험군 18 대조군 20
김영희/ 2015	-	-	1	-	실험군 62 대조군 57

대학신입생의 학교적응 연구는 35개 이상의 학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3년제 학교는 11개, 4년제는 12개, 3년제 혹은 4년제가 12개, 기타가 4편 있었다. 조사된 학과로는 인문, 경상, 과학, 공학, 유아교육, 무용, 치위생, 간호학과, 이외 표시되지 않은 학과를 포함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간호학과 대상의 연구는 13개로 54%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 수는 양적연구에서는 최저 104명에서 최고 1,927명 범위에 있었으며, 20개 연구에서의 평균은 408명 정도로 나타났다. 4편의 실험연구에서의 대상자는 19명에서 62명의 범위로 나타났다[표 2].

### 2. 대학신입생의 학교적응 평균점수와 적응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 평균은 17편의 상관관계연구에서 2.90점에서 3.72점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25점이었다. 학교 적응 평균점수 중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연구는 9개이었으며, 평균 이하는 8개이었다. 평균 이상을 보인 연구는 학과를 보면 간호학과 5개, 경상.인문. 과학계열 대상 1개, 무용학과 1개, 기타 1개 총 9개이었으며, 평균 이하의 학교적응 평균점수를 보인 연구는 간호학과 6개, 유아교육학과 1개, 과학, 인문, 공학, 간호-보건학과 1개로 총 8개이었다. 실험연구에서의 효과크기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용한 김수미 연구[17]에서 0.92로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대학생활 적응프로그램을 적용한 김영희 연구[18]에서는 효과크기가 0.27로 중간정도의 효과를 보였다.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용한 서혜정 연구[19]에서는 효과크기 0.16,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이경현 연구[26]에서는 효과크기 0.11로 작은정도의 효과를 보였다[표 3].

24개 연구들에서 이용된 대학 신입생 학교 적응 도구는 24개 연구 중 23개 연구에서 Baker와 Siryk[27]의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1개 연구만이 조사자가 개발한 도구를 연구에 이용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이용된 대학생 학교 적응 연구에 이용된 연구도구의 문항 수는 25문항과 67문항은 각 8개 연구(33.3%)에서 이용하였다. 이외 연구들에서 이용된 조사도구의 문항 수는 각 19,20,24,

27,38,46,59문항을 이용하였으며, 1개 연구에서는 문항수를 서술하지 않았다. 여러 연구에서 이용된 대학생 학교 적응 연구도구의 척도는 5점 척도는 16개 연구(44.4%), 9점 척도는 6개 연구(25.0%), 4점 척도는 1개 연구(4.16%), 도구 척도를 기록하지 않은 연구는 1개이었다. 여러 연구에서 이용된 학교 적응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0.74에서 0.94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모든 연구에서 신뢰도가 0.7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3. 분석된 문헌의 학교적응 평균치와 효과크기

연구자/년도	학교적응 평균± 표준편차	전체 평균 (3.25)과 차이	효과 크기
박복남등/2009	3.82±0.68	+0.57	-
조화진등/2010	-	-	-
배선임/2011	3.25±0.46-3.29±0.46	0~+0.04	-
김경옥등/2011	-	-	-
양경희등/2012	3.34±0.47	+0.09	-
박미정등/2012	3.04±0.41	-0.21	-
강현임등/2012	3.42±0.56	+0.17	-
최효진등/2012	3.75±0.56	+0.50	-
정효주등/2012	2.90±0.37	-0.35	-
한수정/ 2013	3.73±0.68	+0.48	-
차선정/ 2013	2.93±0.42	-0.32	-
김근면등/2013	2.90±0.38	-0.35	-
김진영/ 2013	2.96±0.419	-0.29	-
최혜정등/2013	3.27±0.46	+0.02	-
정영숙등/2014	-	-	-
김은아등/2014	2.94±0.59	-0.31	-
심태은등/2014	3.50±0.58	+0.25	-
박현태/ 2014	3.01±0.44	-0.24	-
조인영/ 2014	3.06±0.29	-0.19	-
강희영등/2015	3.43±0.44	+0.18	-
서혜정등/2012	-	-	0.16
김수미등/2013	-	-	0.92
이경현/ 2014	-	-	0.11
김영희/ 2015	-	-	0.27

### 3. 대학신입생 학교적응 연구에서 적응과 관련된 변수

본 연구결과 대학신입생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수는 20개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변수는 많은 연구들에서 관련된 변수로 연구되어졌다. 대학신입생 학교적응과 긍정적 관계를 나타낸 변수로는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 '만족', '셀프리더십', '부모애착', '자아탄력성', '자기자비',

‘심리적 안녕감’, ‘회복력’, ‘지지’, ‘진로정체감’, ‘의사결정역량’, ‘교수의 열정’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대학신입생 학교적응과 부정적 관계를 나타낸 변수로는 ‘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이었다. 대학 신입생 학교적응과 부정적 혹은 긍정적 관계를 보인 변수로는 ‘불안’, ‘정서’, ‘자기조절’, ‘대처’ 등이었다.

대학신입생 학교적응과 ‘자기존중감’ 변수로 조사한 연구는 5개[20][21][28][29][33]이었으며 상관계수는  $r=.43$ 에서  $r=.63$ 으로 나타났다. 대학신입생 학교적응과 ‘자기효능감’ 변수로 조사한 연구는 4개[20][28][30][31] 연구로  $r=.13$ 에서  $r=.43$  범위로 나타났다.

대학신입생 학교적응과 ‘만족’ 변수로 조사한 연구는 3개로 박미정 연구[5]에서는 만족( $r=.53$ ), 한수정 연구[32]에서는 사회성 만족( $r=.44$ ), 조인영 연구[33]에서는 전공만족( $r=.21$ )로 나타났다. 대학신입생 학교적응과 ‘스트레스’ 변수는 연구는 5개[22][29][30][31][34]로  $r=-.40$ 에서  $r=-.53$ 의 범위를 보였다. 대학신입생 학교적응과 ‘정서’ 변수로 조사한 연구는 3개로 이루어졌으며 김근면 연구[35]에서는 ‘정서주의’  $r=.45$ , ‘정서명명’  $r=.37$ , ‘정서지능’  $r=.47$ , 정효주 연구[20]에서는 ‘정서인식’  $r=.32$ , 박현태 연구[23]에서는 ‘정서표현 양면성’  $r=-.37$ 로 나타났다.

대학신입생 학교적응과 대처 변수를 조사한 연구는 2개로 김은아 연구[36]에서는 ‘대처방식’  $r=.41$ , 강희영 연구[22]에서는 ‘문제대처’  $r=.23$ , ‘희망적 사고대처’  $r=-.20$ 로 나타났다. 이외 대학신입생 학교적응과 조사된 변수는 각 1개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자아’는 배선임 연구[37]에서 이루어졌으며, 양육부모자아  $r=.19$ , 성인자아는  $r=.18$ 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김진영 연구[38]에서 이루어졌으며, 행동중심은  $r=.22$ , 보상전략은  $r=.31$ , 건설적 사고전략은  $r=.22$ 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은 심태은 연구[40]에서 조사되었으며 의사소통  $r=.22$ , 신뢰감  $r=.21$ 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최혜정 연구[39]에서 이루어졌으며  $r=.35$ 로 나타났다.

‘자기자비’는 정영숙 연구[24]에서 이루어졌으며,  $r=.56$ 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은 김은아 연구[36]에서 이루어졌으며  $r=.56$ 으로 나타났다. ‘회복력’은 강현임 연구[34]에서 이루어졌으며  $r=.26$ 으로 나타났다.

표 4. 대학신입생 학교적응 관련 변수와 상관계수

대학신입생 학교적응 관련 변수		상관계수 (r)	연구자/년도
자기존중감		.43	박복남외/2009 양경희외/2012
		.57	정효주외/2012
		.50	차선경/2013
		.63	정영숙등/2014
자기효능감		.39	박복남/ 2009
		.43	김경옥등/2011
		.42	양경희등/2012
		.13	최효진외/2012
자아	양육부모자아	.19	배선임/2011
	성인자아	.18	배선임/2011
만족	만족	.53	박미정외/2012
	전공 만족	.21	조인영/2014
	사회성 만족	.44	한수정/2013
셀프리더십	행동중심	.22	김진영/2013
	보상전략	.31	김진영/2013
	건설적사고전략	.22	김진영/2013
부모애착	의사소통	.22	심태은등/2014
	신뢰감	.21	심태은등/2014
자아탄력성		.35	최혜정등/2013
자기자비		.56	정영숙등/2014
심리적 안녕감		.56	김은아등/2014
회복력		.26	강현임등/2012
지지		.43	최혜정등/2013
진로정체감		.25	조인영/2014
의사결정역량		.15	박미정등/2012
교수의 열정		.34	한수정/2013
스트레스		-.40	김경옥등/2011
		-.43	양경희등/2012
		-.53	강현임등/2012
		-.46	최효진등/2012
		-.51	강희영등/2015
스마트폰 사용		-.38	심태은등/2014
불안	애착불안	-.26	조희진등/2010
	분리불안	.37	조희진등/2010
정서	정서주의	.45	김근면등/2013
	정서명명	.37	김근면등/2013
	정서표현양면성	-.37	김근면등/2013
	정서지능	.47	정효주등/2012
	정서인식	.32	박현태/2014
자기조절	적극적	.18	차선경/2013
	회피형	-.20	차선경/2013
대처	대처 방식	.41	김은아등/2014
	문제 대처	.23	강희영등/2015
	희망적 대처	-.20	강희영등/2015

‘지지’는 최혜정 연구[39]에서 이루어졌으며  $r=.43$ 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은 조인영 연구[33]에서 이루어졌으며  $r=.25$ 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역량’은 박미정 연구[5]에서 이루어졌으며  $r=.15$ 로 나타났다. ‘교수의 열정’은 한수정 연구[32]에서 이루어졌으며  $r=.34$ 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은 심태은 연구[40]에서 이루어졌으며  $r=-.38$ 로 나타났다. ‘불안’은 조화진 연구[41]에서 이루어졌으며 애착불안  $r=-.26$ , 분리불안  $r=.37$ 로 나타났다. ‘자기조절’은 차선정 연구[21]에서 이루어졌으며 적극적  $r=.18$ , 회피형  $r=-.20$ 으로 나타났다[표 4].

#### 4. 대학신입생 학교적응 연구에서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용

대학신입생 학교적응과 관련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 요소로는 연령, 성별, 지각된 건강상태, 성격, 여가활동 등이 포함되었다. 연령이 많을수록 대학신입생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20].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5].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22]. 외향적 성격이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22][34]. 여가활동이 있는 경우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5]. 가정 관련 요소로는 가족과 같이 사는지, 가정경제생활이 포함되었다.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22][35]. 가정경제가 ‘중’인 경우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20][35]. 학교관련요소는 동아리활동 참여, 적성에 따른 학과지원, 지각된 학습생활, 학업성취,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생활에 만족, 학과 만족, 교수와의 미팅 등이었다.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경우가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20]. 적성에 따른 학과 지원한 경우가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5][18][22][35]. 지각된 학습생활이 적절한 경우에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5].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5]. 친구 관계가 좋을수록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28][29].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18][20][22][28][29]. 학과에 만족할수록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20][28][29]. 교수와 미팅이 많은 경우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20][표 5].

표 5. 대학신입생 학교적응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

범주	특성	학교적응이 높은 조건	연구자/년도
개인적 요소	나이	많을수록	정효주등/2012
	성별	남학생	박미정등/2012
	지각된 건강상태	좋음	강희영등/2015
	성격	외향성	강희영등/2015
	여가활동	유	박미정등/2012
가정 관련 요소	동거유형	가족	김근면등/2013 강희영등/2015
	가정경제생활	중	정효주등/2012 최혜정등/2013
학교 관련 요소	동아리활동	참여	정효주등/2012 김근면등/2013
	적성에 따른 학과 지원	취업용이	박미정등/2012 김근면등/2013 강희영등/2015 김영희/2015
	지각된 학습생활	적절	박미정등/2012
	학업성취	상	박미정등/2012
	친구등 관계 만족	유	박복남등/2009 양경희등/2012
	학교생활 만족	유	박복남등/2009 양경희등/2012 정효주등/2012 강희영등/2015 김영희/2015
	학과 만족	간호학과	박복남등/2009 양경희등/2012 정효주등/2012
	교수미팅	많음	정효주등/2012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의 학교적응 관련 문헌분석 연구로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 관련 연구의 여러 특성 파악, 대학 신입생 학교적응 연구의 적응 평균 점수와 효과크기 파악,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 관련 변수와 상관관계수 파악 및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 관련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여 대학신입생 학교적응 과정 및 개선방법에 대해 제언하고자 시도되었다.

대학신입생 학교적응 연구는 2009년부터 1편씩 연구되다가 2012년부터 5-6편으로 증가되어 대학 신입생의 적응에 대해 관심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연구 대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 경기 충청 경상 강원 광주와 이외 여러 도시에 있는 3,4년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왔다. 대학신입생 적응이 조사된 학과는 간호학과가 50% 정도로 많았으며 인문, 경상, 자연,

공학, 치위생, 유아교육, 무용 등 다양한 학과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최근 대학 신입생의 적응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휴학이나 자퇴학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규모의 대학신입생 연구가 필요하며, 각 대학에서는 각 대학과 학과별 교육 필요내용을 조사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하여 대학신입생의 학교적응을 돕고 사회인으로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공운정과 광소영 연구[42]에서는 '일 대학 신입생 대학적응 실태 조사' 결과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사회봉사, 문화 활동, 친구관계, 외국어 실력, 취업, 동아리활동, 학과공부, 교양독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참조하여 대학 신입생이 무엇을 알고 싶은지 참조하여 대학신입생 적응프로그램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문헌분석 중 상관관계 연구에서 신입생 적응 평균 점수는 3.25로 중간 이상을 나타내었다. 적응 평균은 각 학과와 학과가 상황이 다르고 학생이 다르므로 평균 이상과 이하를 보인 연구들이 대조를 보였다. 이에 각 학교는 학교적응 결과에 따른 대책마련과 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문헌 분석에서 24개 연구 중 23개 연구에서 외국에서 개발한 학교적응 도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국과 국내의 대학 환경이 다르므로, 국내 대학 환경이 고려된 대학 신입생 적응 도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문헌분석에서 대학신입생 적응을 위한 실험연구에서 이용한 프로그램 종류에는 멘토링 프로그램, 대학 생활적응 프로그램, 인지정서행동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용되었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은 고학년이 멘토가 되어 저학년의 적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각 대학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 대학에 맞는 대학신입생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년 시행하여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성연 연구[43] '대학신입생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요구 분석연구'에서 신입생에게 필요한 교육은 대학생

활 적응과 관련된 교육, 대학 구성원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학습 및 교육에 대한 전공, 학과, 대학에 대한 소속감 배양 교육, 성인으로서의 가치관 형성과 진로설정 등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각 대학 신입생의 요구 및 관련 연구들을 참조하여 효과적인 신입생 적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문헌분석에서 대학신입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되어 연구되어진 변수는 대략 20개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는 4-5개의 연구들에서 이용될 정도로 학교 적응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 문헌분석에서 대학신입생 학교적응과 긍정적 관계를 나타낸 변수들로는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 '만족', '셀프리더십', '부모애착', '자아탄력성', '자기자비', '심리적 안녕감', '회복력', '지지', '진로정체감', '의사결정역량', '교수의 열정' 등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중감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학적응에 높다고 알려져 있다[20].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자기효능감 역시 대학생 적응에 도움이 된다[44].

반대로 대학 신입생 학교 적응과 부정적 관계를 나타낸 변수로는 '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이었다. 스트레스는 대학생의 학교적응이나 생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생활만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5-47].

이외에 대학신입생 학교적응과 조사된 변수로는 '자아', '셀프리더십', '부모애착', '자아탄력성', '자기자비', '심리적 안녕감', '회복력', '지지', '진로정체감', '의사결정역량', '교수의 열정', '스마트폰 사용', '불안', '자기조절' 등으로 나타났다[5][21][24][32-34][36-41].

본 문헌분석을 통하여 대학 적응에 영향력있는 변수들을 기초로 대학신입생 적응프로그램 계획에 고려하면 효과적인 적응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생의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증진 방안, 스트레스 관리전략, 불안감소 전략, 만족도 증가를 위한 방안, 가족/ 동료/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정서



적인 측면,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되면 대학 신입생의 학교 적응에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문헌분석결과 대학신입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 요소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외향적 성격이, 여가 활동이 있 경우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5][20][22][34]. 가정 관련 요소로는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가정경제가 '중'인 경우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20][22][30]. 학교관련요소는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경우, 적성에 따른 학과 지원한 경우, 지각된 학습생활이 적절한 경우,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친구 관계가 좋을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학과에 만족할수록 대학신입생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18][20][22][28][29][35].

이러한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할 때 대학신입생의 적응을 위하여 동아리활동과 여가활동 참여 격려, 학업성취 높이기 위한 방안, 친구관계 증진을 위한 관련 수업참여 및 팀활동 강조, 학교환경의 개선 등이 학교 측이나 적응프로그램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 신입생들은 대학생활에 대하여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미숙한 상태로 대학에 오게 되는 관계로 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입학 초기에 며칠 동안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 또는 한 학기 동안 대학생활과 병행하면서 실시할 것을 제안한 연구도 있다[48]. 이외 대학 신입생에게 교육의 중재[48], 지지[49]가 필요하며, 회복탄력성[50]을 높이기 위한 활동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적응 프로그램과 각 학과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의 진행 및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1] 백지숙,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8권, 제1호, pp.127-137, 2000.
- [2] 최정윤, 이병식, “대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제27권, pp.199-222, 2009.
- [3] R. Dyson and K. Renk, “Freshme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Depressive symptoms,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62, No.10, pp.1231-1244, 2006.
- [4] L. T. David and G. L. Nitä, “Adjustment to first year of college - relations among self-perception, trust, mastery and alienation,”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127, pp.139-143, 2014.
- [5] 박미정, 함영림, 오두남, “전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 정도 및 상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327-337, 2012.
- [6] 진은화, “대학 신입생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기반 연구: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도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제26권, 제3호, pp.103-122, 2013.
- [7] R. C. Feldt, M. Graham, and D. Dew,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Construct validity of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44, No.2, pp.92-104, 2011.
- [8] 박진아, 이은경,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제17권, 제3호, pp.267-276, 2011.
- [9] 홍계옥, 강혜원, “대학생의 부모애착,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육연구*, 제13권, pp.133-144, 2010.
- [10] 금명자, 남향자, “전국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기대 및 정신건강,” *인간이해*, 제31권, 제1호, pp.105-127, 2010.
- [11] M. R. Clark, “Negotiating the freshman year: Challenges and strategies among first-year

-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46, No.3, pp.296-316, 2005.
- [12] A. I. Clinciu and A. M. Cazan, “Academic Adjustment Questionnaire for the university studen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127, pp.655-660, 2014.
- [13] 윤향숙, 황윤미, 김덕범, 장성화, “대학생의 자아분화,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신건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제10권, 제2호, pp.1-25, 2011.
- [14] 김진희, 도재우,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플래너 활용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18권, 제1호, pp.111-131, 2012.
- [15] 이경아, 신혜린, 유나현, 이기학, “학교상담: 간편 대학생활적응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제9권, 제2호, pp.739-754, 2008.
- [16] 권해수, “전공기반의 신입생세미나 운영 효과 검증—상담심리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연구*, 제7권, 제2호, 2013.
- [17] 김수미, 정경은,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제11권, 제4호, pp.201-210, 2013.
- [18] 김영희,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간호전문직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 pp.8948-8956, 2015.
- [19] 서혜정, 임진형, 원계선, “유아교육과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이 학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1권, 제1호, pp.177-205, 2012.
- [20] 정효주, 정향인,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제21권, 제3호, pp.188-196, 2012.
- [21] 차선정,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양식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청주대학교 보건의료과학연구*, 제2권, 제1호, pp.60-68, 2013.
- [22] 강희영, 최은영, “간호대학 신입생의 행동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1권, 제3호, pp.289-297, 2015.
- [23] 박현태,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pp.1576-1583, 2014.
- [24] 정영숙, 김수빈, “대학신입생의 자기존중감, 자기자비와 대처전략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제27권, 제4호, pp.117-138, 2014.
- [25] Cochrane,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Retrieved 2016.06.20. from <http://handbook.cochrane.org/>
- [26] 이경현, *인지정서행동치료(REBT)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7] R. W. Baker and B. Siryk, “Measuring academic motivation of matriculating college fresh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Vol.25, No.5, pp.459-464, 1984.
- [28] 박복남, 박종선, 이정란,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제34권, 제2호, pp.153-164, 2009.
- [29] 양경희, 이정란, 박복남,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8권, 제1호, pp.5-13, 2012.
- [30] 김경옥, 조윤희, “대학신입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4호, pp.197-218, 2011.
- [31] 최효진, 이은주,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기본간호학회지*, 제19권, 제2호, pp.261-268, 2012.
- [32] 한수정, *문화예술 기숙프로그램의 교수행동이*

- 대학신입생의 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2013.
- [33] 조인영,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상관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pp.2937-2945, 2014.
- [34] 강현임, 이정란, “일 간호대학 신입생의 MBTI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극복력, 적응,”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제13권, 제3호, pp.1-12, 2012.
- [35] 김근면, 차선경, “간호대학 신입생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322-332, 2013.
- [36] 김은아, 박경임, “간호대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권, 제2호, pp.234-243, 2014.
- [37] 배선임, *교류분석이론에 따른 자아상태 및 인생태도가 대학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2011.
- [38] 김진영, “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쉽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연구,” 직업교육연구, 제32권, 제6호, pp.43-56, 2013.
- [39] 최혜정, 이명선, “일부 치위생과 신입생의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연관성,” 대한보건연구, 제39권, 제2호, pp.129-138, 2013.
- [40] 심태은, 이송이, “부모애착 및 스마트폰 사용이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제19권, 제3호, pp.471-487, 2014.
- [41] 조화진, 서영석,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제22권, 제2호, pp.385-411, 2010.
- [42] 공윤정, 광소영, “2011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신입생의 대학적응 실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제32권, 제1호, pp.53-76, 2012.
- [43] 홍성연, “대학신입생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교육종합연구, 제14권, pp.1271-1295, 2016.
- [44] D. W. Wei, M. Russell, and R. A. Zakalik, “Adult attachment, social self-efficacy, self-disclosure, loneliness, and subsequent depression for freshman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2, No.4, p.602, 2005.
- [45] D. L. Coffman and T. D. Gilligan, “Social support, stress, and self-efficacy: Effects on students’ satisfac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Vol.4, No.1, pp.53-66, 2002.
- [46] 김성경,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2호, pp.215-237, 2003.
- [47] R. Dyson and K. Renk, “Freshme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Depressive symptoms,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62, No.10, pp.1231-1244, 2006.
- [48] S. Fei, “Freshman’s Adaptation Through Educational Intervention,” *Journal of Northeastern University (Social Science)*, Vol.2, No.015, 2007.
- [49] C. Jun, “Relation between Freshmen’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Wuh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Vol.4, No.016, 2004.
- [50] L. Zheng, “Teaching Adaptation, Teaching Approach Preference and Learning Interest: Based on a Survey on Freshmen,” *Renmin University of China Education Journal*, Vol.1, No.008, 2015.

저 자 소 개

유 경 희(Kyung Hee Yoo)

정회원



- 1985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석사)
- 1996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박사)
- 1996년 9월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 및 청소년 건강증진, 통증간호, 만성질환간호

김 중 경(Jong Kyung Kim)

정회원



- 1992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석사)
- 2005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 간호결과, 리더십, 간호조직관리, 간호인적자원관리